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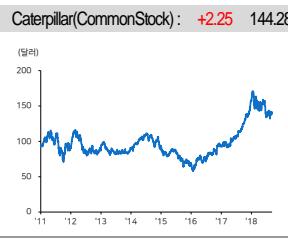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784.0	16.2	127,000	24	18.1	4.5	32.4	885	424	0.6	0.6	0.7	1.4
현대중공업주	6,074.9	20.6	373,000	0.4	2.6	-32	-2.1	5.0	42	0.7	0.6	14.1	14.7
현대알렉트릭	644.0	5.1	63,100	-0.6	1.1	-25.8	-44.6	6.0	52	0.5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155.5	9.0	117,000	0.4	-4.1	-28.9	-30.8	7.4	55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4,832.1	17.8	7,670	2.1	19.8	1.7	18.6	48.4	24.0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318.0	8.2	30,950	-0.2	21.9	11.7	122.7	6.8	16.5	0.9	0.8	13.7	5.2
현대미포조선	1,910.0	9.8	95,500	1.1	2.6	3.6	21.3	20.6	14.9	0.7	0.7	3.6	4.8
한진중공업	277.9	7.0	2,620	-2.1	-4.4	-22.1	-20.8	52.7	13.1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150.4	22.6	116,000	2.2	20.2	-2.9	113.2	20.5	19.9	28	25	14.6	13.3
두산밥캣	3,614.0	26.0	36,050	-1.0	7.1	7.6	2.0	13.2	12.4	1.0	1.0	7.4	7.6
현대로템	2,656.3	2.1	31,250	0.6	15.3	-14.6	66.7	40.3	27.5	1.8	1.7	4.5	6.3
하이록코리아	300.9	48.8	22,100	-1.8	-0.5	-27.8	-1.8	10.0	92	0.9	0.8	8.8	9.0
성광밴드	313.2	16.1	10,950	-0.9	3.3	-14.1	9.7	968.0	39.3	0.7	0.7	0.1	1.8
태광	320.7	13.2	12,100	-0.8	1.7	-6.2	0.4	72.3	35.3	0.8	0.7	1.0	2.1
두산중공업	1,722.0	14.8	14,700	-0.7	1.0	-21.4	-4.2	24.3	8.9	0.5	0.5	2.6	5.2
두산인프라코어	1,956.7	19.7	9,400	-0.4	-3.3	-11.7	8.2	6.2	5.7	1.0	0.9	17.6	16.3
HSD엔진	132.4	4.2	4,020	-0.2	15.2	N/A	56.5	-15.5	-20.4	N/A	N/A	4.5	-8.7
한국항공우주산업	4,332.8	14.5	44,450	1.0	17.4	-3.2	-6.3	37.4	27.7	3.7	3.3	9.6	1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76.5	11.7	26,450	-2.2	18.3	-14.1	-25.6	34.2	18.8	0.6	0.6	22	3.3
LIG넥스원	750.2	8.8	34,100	1.2	0.9	-30.5	-43.0	N/A	N/A	N/A	N/A	N/A	N/A
태웅	285.1	4.6	14,250	-2.4	-2.4	-21.3	-26.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04.3	5.5	7,570	2.7	11.3	19.8	49.9	-38.8	20.3	2.6	2.4	-6.4	12.4
한국카본	294.5	13.8	6,700	1.8	16.7	8.1	25.0	77.7	20.6	0.9	0.9	1.2	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eep-water rig rates 'set for rise'

글로벌 탐티어 시추업체 Transocean과 Seadrill은 시장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 특히 전방산업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시추장비 폐선으로 임월 회복을 전망함. 현재 심해 시추장비 평균 용선료는 하루 20만달러를 하회하나, 내년부터 회복을 시작해 2020년에는 40만달러에 이를 전망임. (Upstream)

ExxonMobil eyes low-sulphur fuel with \$650m upgrade

오일메이저 ExxonMobil은 5억유로(6.51억달러)를 영국 정유시설에 투자해 저유황유 생산을 진행할 계획임. 현재 Fawley 시설의 생산능력은 하루 27만배럴 수준으로 알려짐. 반면 Gunvor 그룹은 저유황유 생산에 대한 투자를 계획했다가, 최근 투자계획 시점 대비 시황 변동에 따라 투자 결정을 철회함. (TradeWinds)

STX조선, MR 탱커 2척 RG발급...추가 수주 '청신호'

STX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에서 MR탱커 2척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받음. 해당 선박은 그리스 OceanGold Tankers에서 수주했고, 2차 옵션분 2척임. 인도는 2020년 1분기로 예정되며, SOx(황산화물) Ready 사양(스크러버를 장착할 수 있도록 준비)으로 건조될 계획으로 알려짐. (EBN)

Pareto survey predicts offshore spending will jump 10% in 2019

Pareto 증권이 오일메이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 Offshore 예산이 전년대비 10% 증가할 전망임. 또 2018년은 Offshore 업황 최저점으로 전망함. 오일메이저의 RRR(매장량 대체율)은 2009년 160%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100%를 하회해 Offshore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TradeWinds)

Maersk changes course on scrubbers

글로벌 1위 컨테이너선사 Maersk는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대에 스크러버 장착을 계획함. 기존 스텐스는 저유황유만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750척 선대 일부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계획으로 전환됨. 그러나 주된 방식은 저유황유 사용을 강조했고, 지난 8월 저유황유 병커링시설에 투자도 진행함. (TradeWinds)

LNG exports to rise nearly 50% by 2022

DNV GL(노르웨이동일선급)에 따르면 글로벌 LNG 수출설비는 2017~22년 사이에 45% 증가하며, 이 중 90%는 이미 인가를 받은 설비로 전망됨. 미국 LNG 수출물량 증가가 글로벌 LNG 물동량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임. LNG와 LPG 합산 해상 물동량은 현재 3.85억톤에서 2050년 7.8억톤으로 전망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1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